

#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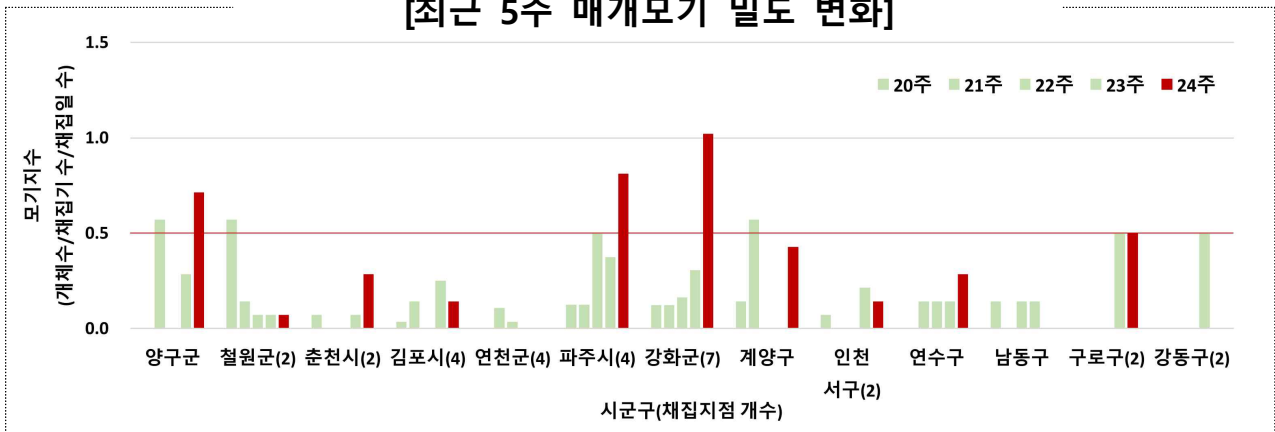
- 24주차 매개모기 밀도 증가로 주의보 발령 기준 충족
- 말라리아 유행지역 중심 모기 방제 강화 필요
- 야외활동 시 모기 물림 예방수칙 준수하고, 유행지역 거주자는 발열 시 말라리아 검사 받아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 증가로 인해 **주의보 발령 기준이 충족됨에 따라 6월 22일(월)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말라리아 주의보는 일일 평균 모기지수\*가 0.5이상인 시·군·구가 3곳 이상일 때 발령된다. 올해 24주차 감시결과, 총 4개 시·군[경기 파주시(0.8), 인천 강화군(1.0), 강원 양구군(0.7), 서울 구로구(0.5)]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였다.

\* 모기지수(Trap Index, TI): 하루 평균 한 대의 채집기에서 채집된 모기수

[최근 5주 매개모기 밀도 변화]



올해 주의보는 2025년과 같은 시기(24주차)에 발령되었으며, 최근 4주차(21~24주)의 평균기온은 20.5℃로 평년('23~'25) 20.1℃ 및 전년 20.0℃ 대비 비슷한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 위험지역 대상 매개모기 조사 감시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매개모기 밀도 감시와 삼일열원충 검출검사를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총 88개 지점에서 국방부, 4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서울, 인천, 경기, 강원), 보건소와 함께 협력하여 추진 중이다.

2026년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24주(1.1.~6.13.)까지 총 74명으로 전년 동기간(136명) 대비 45.6% 감소하였고, 지역별 환자 발생은 경기 43명(58.1%), 인천 17명(23.0%), 서울 8명(10.8%) 순으로 나타났다. 역학조사 결과 주요 추정 감염지역은 경기(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고양시 일산서구), 인천(강화군)으로 확인되었다.

모기 방제, 물림 예방 및 빠른 진단·치료는 말라리아 전파 차단과 확산 방지에 필수적이다. 지자체와 소독 의무 대상시설에서는 유충 서식지와 성충 휴식처에 대한 종합방제를 실시하여 모기밀도를 낮추고, 위험지역 내 의료기관에서는 발열 환자(37.5℃ 이상) 방문 시 말라리아를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말라리아 주의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해당지역 주민과 방문자는 모기 물림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며,

“말라리아 유행지역에서 야간활동 시 모기에 물린 후,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조기에 검사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 말라리아 예방수칙 >

- ◆ 국내에서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야간(일몰 직후 ~ 일출 직전)에는 야외활동을 가능한 자제
- ◆ 야간 외출 시에는 밝은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고, 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를 3~4시간 간격으로 뿌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법 실천
- ◆ 옥내의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의 정비 및 모기장 사용을 권고하고, 실내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할 것
- ◆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 군 복무 후 의심 증상(오한, 고열, 발한이 48시간 주기로 반복하며 두통, 구토, 설사 등 동반) 발생 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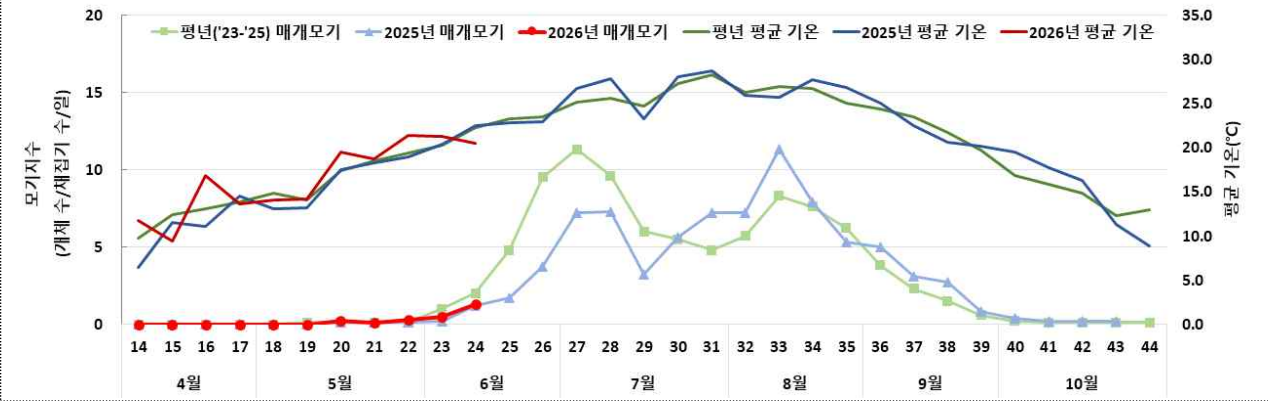
- <붙임> 1. 말라리아 매개모기 발생, 기상요인 및 환자발생 현황  
 2. 말라리아 주의보·경보 발령 기준 및 조치사항  
 3. 말라리아 매개모기 특징 및 2026년 감시 지점  
 4. 말라리아 질의응답(Q&A)  
 5. 말라리아 예방수칙 홍보물

담당 부서 <총괄>	진단분석국 매개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희일 (043-719-8560)
		담당자	연구관	주정원 (043-719-8521)
			연구사	서진성 (043-719-8565)
담당 부서 <협조>	감염병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책임자	과 장	여상구 (043-719-7160)
		담당자	연구관	권정란 (043-719-7162)
			연구사	신현일 (043-719-7175)

# 붙임 1

## 말라리아 매개모기 발생, 기상요인 및 환자 발생 현황

[ 말라리아 매개모기 모기지수 및 평균기온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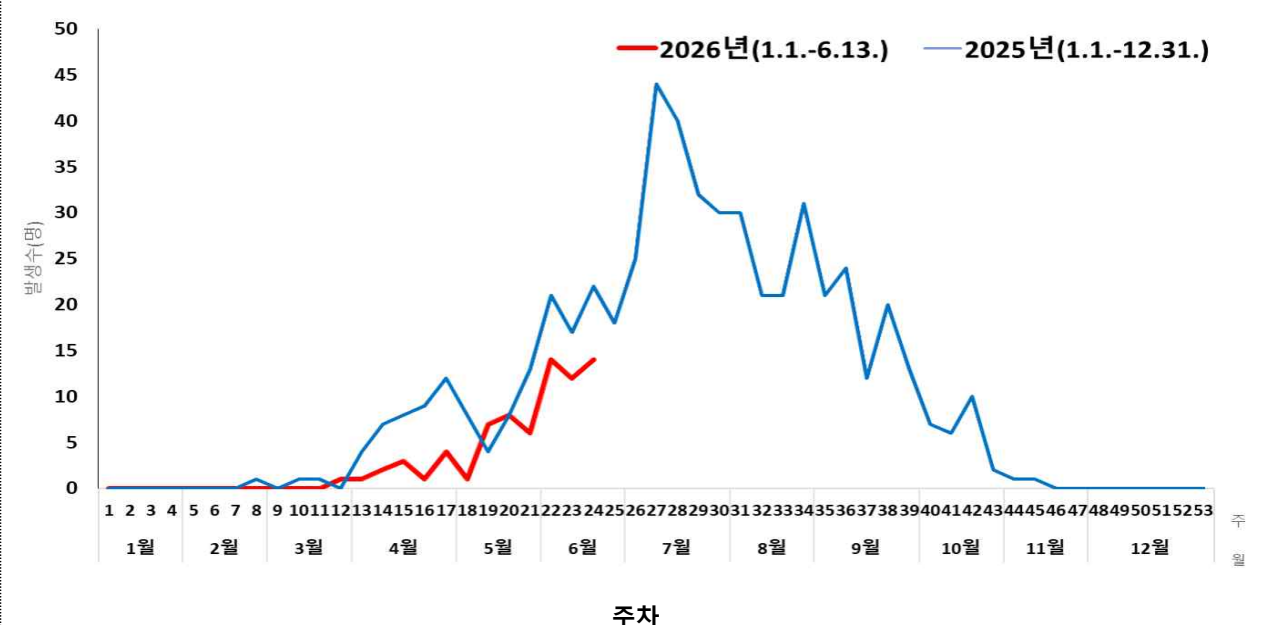


[ 위험지역의 최근 4주간 기상요인 변화 ]

구분	주차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일강수량(mm)			
		21	22	23	24	21	22	23	24	21	22	23	24	21	22	23	24
평년('23-'25)		18.4	19.4	20.2	22.3	24.1	26.0	26.4	29.1	13.4	13.6	14.9	16.6	2.9	0.6	2.6	1.1
2025		18.3	18.9	20.4	22.5	23.4	26.3	26.2	29.3	13.4	12.4	15.0	16.7	0.7	0.2	0.2	2.3
2026		18.7	21.4	21.3	20.4	24.5	27.7	27.8	27.3	13.7	16.0	15.5	14.8	9.0	1.3	1.7	1.3
평년 대비		0.3	2.0	1.1	-1.8	0.4	1.7	1.4	-1.7	0.4	2.4	0.7	-1.8	6.1	0.7	-0.9	0.2
전년 대비		0.4	2.5	0.9	-2.0	1.1	1.3	1.6	-1.9	0.3	3.6	0.6	-1.9	8.2	1.1	1.5	-1.0

\* 2024~2026년은 서울지역 기온이 포함됨

[ 국내 말라리아 환자 주별 발생 추이 ]



□ **목적**

-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대상으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시기에 말라리아 주의보·경보를 발령하여 예방수칙 홍보 및 무증상 감염자 조기 발견, 예방약 제공 등 지역사회 내 유행 차단

□ **발령기준**

- 매개모기 및 군집사례 기준으로 설정

**<말라리아 주의보 및 경보 발령 기준>**

구분	발령 기준	범 위	주 체
주의보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 수(TI) 0.5이상인 시·군·구가 3곳 이상인 경우(파주 조산리, 군 제외)	전국	질병관리청 (매개체분석과)
경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의보 발령 이후 한 가지 이상 해당 시</li> <li>- 첫 군집사례 발생 시</li> <li>-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 수(TI)가 동일 시·군·구에서 2주 연속 5.0이상인 경우(파주 조산리, 군 제외)</li> </ul>	해당 시·군·구	해당 시·도
	채집된 모기로부터 말라리아 원충이 검출된 경우(전체 채집지점)	전국	질병관리청 (매개체분석과)

\*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 수(모기지수, Trap Index): 채집 개체수/트랩수/채집일수

□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 주의보 발령 시 대국민 대상 말라리아 예방수칙 홍보 및 말라리아 위험지역 의료기관 발열자 대상 신속진단검사(RDT) 또는 유전자 검출검사(PCR) 실시
- 경보 발령 시
  - ① 군집사례 기준: 해당 지역주민 중 추가사례 감지를 위한 지역 언론매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집중홍보, 지역주민 대상 신속진단검사(RDT) 실시 및 공동노출자 대상 예방조치(예방약) 제공
  - ② 매개모기 기준: 언론매체를 통해 위험지역 주민과 여행자에게 감염 가능성을 안내하고, 보건소는 환자 주변 및 매개모기 서식지 집중 방제 강화

□ 말라리아 매개모기 특징

- **(형태학적 특징)** 말라리아 매개모기인 '얼룩날개모기(*Anopheles* spp.)'는 전체적으로 검은색의 중형(中形)모기로 날개에 흑·백색의 반점 무늬가 있음. 흡혈 및 휴식 시 복부를 40~50°의 각도로 들고 있고, 촉수가 주둥이만큼 긴 것이 특징
- **(서식 및 활동)** 유충은 논, 수로, 웅덩이 등 고인물 표면에 서식하며, 산란기의 암컷 모기는 야간(19~05시)에 소, 말, 돼지 등을 대상으로 흡혈 활동을 하므로, 축사 대상 종합 방제가 효과적

[ 얼룩날개모기 암컷 성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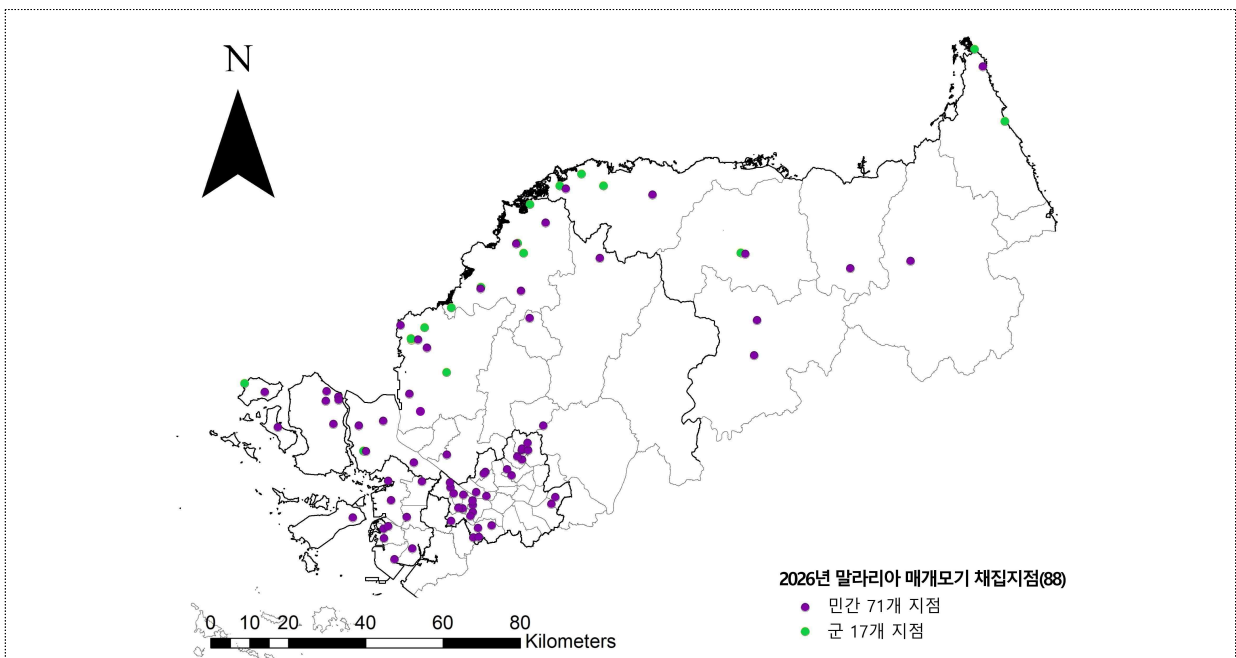


[ 얼룩날개모기류의 머리와 날개 특징 ]



□ 2026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 지점

- 4개 시·도의 88개 지점: 민간 71개 지점, 군 17개 지점



Q 01 말라리아는 무엇입니까?

A 말라리아는 열원충속(Genus *Plasmodium*)에 속하는 원충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발열성 질환입니다. 인체감염 가능한 원충은 삼일열원충(*Plasmodium vivax*), 열대열원충(*P. falciparum*), 사일열원충(*P. malariae*), 난형열원충(*P. ovale*), 원숭이열원충(*P. knowlesi*)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일열말라리아가 토착화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Q 02 말라리아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A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암컷 얼룩날개모기에 물려 감염됩니다. 드물게는 수혈, 장기이식, 혈액에 오염된 주사기 공동사용으로 전파되기도 하며 분만 전이나 분만 중에 산모로부터 태아에게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공기감염이나 감염자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Q 03 말라리아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A 누구나 말라리아 감염 매개모기 물리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례는 말라리아 발생 국가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또한 말라리아가 발생한 국가나 지역을 여행 및 방문한 사람도 감염모기에 물려 걸리기도 합니다.

Q 04 말라리아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A 말라리아의 증상은 비특이적입니다. 발열과 오한, 두통, 근육통, 피로 등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메스꺼움, 구토, 설사도 발생할 수 있고 적혈구 손실로 인해 빈혈과 황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열대열말라리아는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며 신부전, 발작, 정신적 혼란, 혼수상태와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피부와 눈이 노란색으로 변함



말라리아 예방수칙



- ☑ 해외유입 말라리아는 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감염되므로 이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또한 말라리아는 상용화된 백신이 없으므로 말라리아 위험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여행 전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하여야 합니다.
  - \* 해외감염병NOW를 통해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
- ☑ 귀국 후 발열 등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말라리아란?

- ☑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흡혈하면서 전파되는 감염병입니다.
- ☑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7~30일이지만 여러 요인으로 최대 2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봄에 출현하여 가을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5월부터 10월까지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매개모기는 주로 풀숲이나 축사 외벽, 벤치 아래 등에서 휴식하며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활동합니다.

말라리아 발생현황

- ☑ 말라리아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야외활동 증가로 연 700명 내외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증상

- ☑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피로 등 비특이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 \* 기침, 가래를 동반하는 감기와 다름
- ☑ 특히 국내에 토착화된 삼일열 말라리아의 경우 48시간 간격으로 증상이 반복됩니다.

**오한**  
심한 오한이 30분~2시간 정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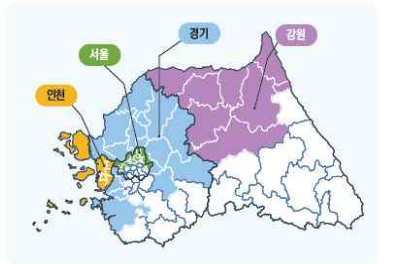
**발열**  
39°C 이상 고열, 심한 두통, 구토가 수 시간 지속

**발한**  
체온이 급격히 정상화되면서 땀이 난 후 지치고 졸림

- ☑ 해외에서 발생한 말라리아는 대부분 열대열 말라리아이며, 증상은 삼일열 말라리아와 비슷하지만 열발작이 주기적이지 않습니다.
- ☑ 그러나 열대열 말라리아의 경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중증으로 발전하여 24시간 이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치료가 우선입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 ☑ 국내 말라리아는 정점 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 강원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 ☑ 최근 3년간 말라리아 다발성 지역은 경기(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연천군), 인천(강화군, 서구), 서울(강서구), 강원(철원군)입니다.

